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II :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와 독서환경 개선 방안*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 성 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김 정 현

대구대학교 강사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로써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 29개 기관과 시각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에서 장애인 도서관의 이용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련 도서관의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10여명 수준으로 열람석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점자도서관의 경우 일반도서관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 자료의 제작방법으로 점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서비스는 차이를 보이며,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에 많은 차이가 있다. 기관들은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독서 관련 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기관별 차이가 크다.

둘째,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으로는 우선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을 통한 접근성 확보,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 및 보급, 다양한 도서의 제공, 자료의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 대면 낭독 서비스, 신간도서의 신속한 자료 제작, 방문 서비스 제공,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독서 장애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형태의 점자 교육, 전문 도서관의 설치, 저작권법 개정, 관련 기자재 및 컴퓨터 활용 교육, 유자격자 배치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장애인, 도서관, 독서환경

*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6)”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9년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발표한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중에는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종,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전재봉, 2002). 이 문구는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며, ‘모든 이용자들’이라는 문구에는 장애인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이해균 외, 2007).

따라서 공공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잠재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접근에 제한이 생긴다면 도서관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등의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처럼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는다거나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독서 장애인이란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독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또한 전무하다. 그리고 현재 독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정부의 보조 없이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성도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에는 누구라도 독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책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독서 환경이 이루어 졌을 때,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이러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다르다.

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서관 관련 기관이 독서 장애인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의 정보 요구에 대한 각종 특수 매체의 제작과 디지털 정보 자료의 확충 그리고 전자 정보의 멀티미디어화 등 국가 정보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정보 서비스 추진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도서관은 문화, 정보, 복지의 종합센터로서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하게 자료 이용이나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도서관이라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도서관은 장애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복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문화관광부 등록 23개관, 보건복지부 산하 6개관,

미등록 5개관 등 모두 34개소에 불과한 데 모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문고보다 못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사이버점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의 명목으로 전국 점자도서관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37억원에 불과하다(<http://news.naver.com/news/read>). 이 같은 지원금으로 우리나라 점자 도서관의 도서제작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된 책의 내용도 문학에만 90%정도로 편중되는 등 다양한 장르의 장서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의 시설 규모면에서도 20평이라는 시설기준이 말해 주듯이 문고형 도서관만 양산시켜놓은 상태이며,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많고 분류체계도 달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체 41개관이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17개의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열람실을 설치했으나, 10개의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폐지했다(<http://news.naver.com/news/read>).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 면에서도 도서관 운영의 인력 부족과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거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읽을 수 있는 확대문자책이나 목자점자책을 자비로 구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선진 외국 장애인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점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발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국립녹음전자도서관이 설립되어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본이나 스웨덴에서 장애인들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점자도서를 일반도서와 같은 값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열약하다보니 일반도서 값의 5배 이상 지불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 국가들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챙기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더욱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립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국가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http://news.naver.com/news/read>).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점자도서관이 도서관별로 각각 구축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의 미비로 인하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도서관의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전자도서관을 구축했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강숙희, 2001).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및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둘째, 재정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과 설비가 부족하고, 셋째, 고가의 자료제작비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료의 수

가 빈약하고 자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고, 직업과 학습에 관련된 전문자료가 부족하고, 넷째, 전문사서의 부족으로 자료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편이며, 실제 도서관 봉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고, 여섯째,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정보 서비스는 특수도서관, 공공도서관, 구청 점자도서실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곱째, 도서관 분야의 시각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정보 봉사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 역시 부족하고, 여덟째, 저작권법 상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서비스는 시설, 자료, 직원 등의 전반적인 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독서 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범국가적 장애인 독서진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시각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75개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75개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에 조사지를 발송하였으나 34부가 회수 되었다.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5곳을 제외하고 2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조사 대상(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 지역별 분포)

소재지	기관수	퍼센트
서울	11	37.9
경기	2	6.9
인천	2	6.9
충청	3	10.3
경상	8	27.6
강원	1	3.5
전라	2	6.9
합계	29	100

둘째,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학교 및 복지관 그리고 관련 기관의 학생, 교사 등 170명의 시각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9부였으며,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126부를 통계처리하였다. 각 설문지별로 그 구체적인 대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조사 대상자 특성(시각장애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2	65.1
	여자	44	34.9
연령별	10대	38	30.2
	20대	29	23.0
	30대	29	23.0
	40대	13	10.3
	50대이상	17	13.5
직업별	고등학생 이하	61	48.4
	대학생	7	5.6
	침술,안마	4	3.2
	회사원	14	11.1
	전문직	14	11.1
	가사	2	1.6
	기타	24	19.0
시력정도별	저시력	52	41.3
	맹	74	58.7
합계	126	100.0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정보 활용 관련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를 다시 강숙희(2001)의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재봉(2002)의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병국(2004)의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계훈방·권선진·이선우(2005)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비교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고, 관련 전문가 3인에게 설문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3> 설문지 및 질문지 종류와 하위 영역

번호	설문 종류	하위 영역별 주요 내용	문항수
1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	보유 자료수, 서비스 종류, 직원 현황	11
2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독서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 서비스 제공 방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4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기관에 전화를 통해 승낙을 받은 후 2006년 11월 2째주에 우편을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독서환경 개선 방안 역시 복수 응답한 내용을 전체로 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

1) 도서관 이용자수

하루 중 도서관 이용자 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하루 평균 이용자수

구 분	빈도	%
0~10명	16	55.2
11~20명	2	6.9
21~30명	4	13.8
21~40명	1	3.4
41~50명	1	3.4
51~60명	1	3.4
61~70명	1	3.4
71~80명	1	3.4
81~90명	1	3.4
91~100명	1	3.4
101명 이상	3	10.3

도서관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0-10명이 55.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은 21-30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1명 이상인 곳은 3군데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주로 방문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이며,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한 방문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인터넷 및 통신을 이용한 이용자 수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2)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유형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으로 전체의 65.5%(N=19)며, 다음은 기타(N=7, 24.1%), 지체장애인(N=3, 10.3%)의 순이었다. 즉, 기타에는 주로 저시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장애인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장애유형

구 분	빈도	%
시각장애	19	65.5
지체장애인	3	10.3
기타	7	24.1

3)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연령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34.5%(N=10)

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로 17.2%(N=5)였다. 중·고등학생은 시각장애학교에서 주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3> 장애인의 연령대

구 분	빈도	%
10대 이하	1	3.4
20대	3	10.3
30대	10	34.5
40대	10	34.5
50대	5	17.2

4) 도서관에 설치된 좌석 수

도서관에 설치된 좌석수는 대부분 10석 이하로 전체의 52.0%(N=13)에 이른다. 다음은 11-20석 이하(N=6, 24.0%), 21-30석 이하(N=4, 16.0%)의 순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대역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열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열람석 수

구 분	빈도	%
0-10석	13	52.0
11-20석	6	24.0
21-30석	4	16.0
31-40석	1	4.0
50석 이상	1	4.0

5) 시설 및 설비 정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설치 정도를 살펴보면 관내 요소별 점자 표시와 유도블럭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23, 79.3%). 이어서 녹음제작실(N=22, 75.9%), 점자제작실과 전용주차구역(각각 N=21, 72.4%)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면 낭독실의 경우는 전체의 24.1%(N=7) 밖에 갖추고 있지 않았다.

<표 III-5> 도서관시설 및 설비

구 분	빈도	%
점자시계	11	37.9
관내요소별 점자표시	23	79.3
맹인용 신호기	15	51.7
녹음제작실	22	75.9
점자제작실	21	72.4
대면낭독실	7	24.1
전용열람실	20	69.0
전용주차구역	21	72.4
전용승강기	11	37.9
리프트	6	20.7
경사로	11	37.9
자동출입문	12	41.4
전용화장실	20	69.0
점자음성안내	9	31.0
유도블럭	23	79.3

6) 보조기기의 구비 정도

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구비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기관별로 화면낭독 S/W는 평균 5.24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으며, 확대화면 S/W는 평균 1.55로 가장 구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구비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점자프린터	2.41	2.70
화면낭독S/W	5.24	9.96
접역S/W	2.51	3.46
확대화면S/W	1.55	2.42
저시력용독서기	3.37	13.79
녹음기	2.89	12.56

7)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 13군데로 이중 12곳(41.4%)은 통합 홈페이지를, 1곳(3.4%)은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홈페이지 구축 정도

구 분	빈도	%
통합	12	41.4
전용	1	3.4
없음	16	55.2

8) 컴퓨터 관련 기기의 보유 현황

컴퓨터 관련 기기의 구비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 PC는 4.55대(SD=7.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저시력용 독서기(M=3.82, SD=14.07), 녹음기(M=3.00, SD=4.86)의 순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DVD는 .48대(SD=1.08), 오디오는 .51대(SD=.75), 점자제판기(M=.57, SD=1.28), TV(M=.66, SD=1.00)로 평균 1대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컴퓨터 관련 기기 구비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점자제판기	.57	1.28
점자인쇄기	1.46	1.83
점자타자기	1.75	2.23
저시력용독서기	3.82	14.07
TV	.66	1.00
VTR	1.88	6.86
DVD	.48	1.08
녹음기	3.00	4.86
오디오	.51	.75
클라이언트PC	4.55	7.30
일반프린터	1.37	1.37
점자프린터	2.31	2.53
프로그램	2.03	4.05

9) 자료 제작 방법

조사대상 도서관의 62.1%(N=18)는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소장 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3.8%(N=4)는 점자제판기와 점자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대부분의 자료가 점자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자료제작방법

구 분	빈도	%
점자프린터	18	62.1
점자제판기와 자프린터	4	13.8
기타	7	24.1

10) 장애인 독서 서비스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음서비스, 점자서비스, 점자프린터에 대한 지원이 각각 69.0%(N=20)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은 점자자료 제작과 녹음자료 제작 그리고 확대독서기에 대한 서비스가 65.5%(N=19)로 다음이었다. 그러나 지원요원 배치와 같은 서비스는 13.8%(N=4)에 그치고 있었다.

<표 III-10> 장애인 독서 서비스

구 분	빈도	%
독서대	10	34.5
지원요원배치	4	13.8
각종 보조공학	7	24.1
녹음서비스	20	69.0
점자서비스	20	69.0
전문요원배치	8	27.6
점자자료 제작	19	65.5
녹음자료 제작	19	65.5
자원봉사요원 배치	8	27.6
음성지원 컴퓨터	17	58.6
점자프린터	20	69.0
점자타자기	14	48.3
확대독서기	19	65.5

11) 도서관 소장 자료의 수

도서관 소장자료수를 토대로 평균을 구하면 점자도서는 1195.70종에 3405.59권, 녹음도서는 3582.58종에 15546.54권, 전자도서는 3198.70종에 10118.14권이였다.

<표 III-11> 도서관 소장 자료의 수

구 분	종(평균/표준편차)	권(평균/표준편차)
점자도서	1195.70(1432.49)	3405.59(4433.57)
녹음도서	3582.58(7247.40)	15546.54(32514.66)
전자도서	3198.70(4272.72)	10118.14(14451.33)
기타	1981.28(3060.82)	1940.50(3188.69)

12) 도서관 전담 직원 현황

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직원 현황을 보면 점역사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서 1.86명, 사회복지사 1.13명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48.18명이었다.

<표 III-12> 도서관 직원 현황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사서	1.86	3.10
점역사	2.82	6.58
교정사	.72	.99
인쇄사	.65	2.09
사회복지사	1.13	1.84
낭독지도요원	.25	.51
녹음실관리자	.78	1.44
* 자원봉사자	48.18	131.36

13) 정보 접근 방법

많은 도서관들이 점자도서목록(N=23, 79.3%)을 정보접근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녹음도서 목록으로 전체의 72.4%(N=21)에 해당한다. 라디오 리딩 서비스는 단 한 군데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CD-ROM(N=4, 13.8%) 역시 활용정도가 낮은 방법들 중의 하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컴퓨터 전화 리딩 서비스가 정보접근의 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표 III-13> 정보접근방법

구 분	빈도	퍼센트
CD-ROM	4	13.8
온라인 정보 서비스	12	41.4
라디오 리딩 서비스	1	3.4
컴퓨터 전화 리딩 서비스	6	20.7
접자 도서 목록	23	79.3
녹음 도서 목록	21	72.4

14) 독서 관련 서비스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 관련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편대출 서비스는 전체의 86.7%에 해당하는 25곳에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회원제 역시 58.6%인 17곳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실비복사와 점역복사는 전체의 51.7%인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회실을 제공(N=1, 3.4%)한다거나, 취미클럽을 지원(N=2, 6.9%)하는 도서관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표 III-14> 독서 관련 서비스

구 분	빈도	퍼센트
우편대출	25	86.2
회원제	17	58.6
독서클럽운영	6	20.7
(일부)도서판매	10	34.5
대면낭독	9	31.0
재활용품보급	4	13.8
집회실 제공	1	3.4
취미클럽 지원	2	6.9
열람제	11	37.9
실비복사	15	51.7
이동도서관 운영	7	24.1
직접방문	12	41.4
점역복사	15	51.7
점역구역	11	37.9

2.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 둘째, 시각장애인의 독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내용, 셋째, 시각장애인에게 독서 어려움을 해소할 서비스 제공 방안, 넷째, 시각장애인 서비스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인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400개의 복수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을 유목화하면 25개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25개의 의견을 빈도수가 높은 의견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형식: 순위/의견/빈도/퍼센트).

1.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을 통한 접근성 확보 / 118명 / 29.5%
2.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 및 보급 / 38명 / 9.5%
3. 다양한 도서의 제공 / 36명 / 9.0%
4. 자료의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 / 26명 / 6.5%
5. 대면 낭독 서비스 / 20명 / 5.0%
5. 신간도서의 신속한 자료 제작 / 20명 / 5.0%
7. 방문 서비스 제공 / 18명 / 4.5%
7.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확보 / 18명 / 4.5%
9.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 16명 / 4.0%
10.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12명 / 3.0%
11. 독서 장애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 10명 / 2.5%
12.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8명 / 2.0%
12. 다양한 형태의 점자 교육 / 8명 / 2.0%
12. 전문 도서관의 설치 / 8명 / 2.0%
12. 저작권법 개정 / 8명 / 2.0%
12. 관련 기자재 및 컴퓨터 활용 교육 / 8명 / 2.0%
17. 유자격자 배치 / 6명 / 1.5%
17. 독서가 가능한 환경 지원 / 6명 / 1.5%
19. 자료 유형별 목록화 / 4명 / 1.0%
20. 출입을 편리하게 / 2명 / 0.5%
20. 자원봉사자 활용 / 2명 / 0.5%
20. 도서 요약 서비스 / 2명 / 0.5%
20. 도서관 이용 안내 서비스 / 2명 / 0.5%
20. 출판된 도서의 컴퓨터 파일 제공 / 2명 / 0.5%

20. 인터넷을 통한 소리도서관의 활성화 / 2명 / 0.5%

위의 내용 중에서 5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이다. 이것은 현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형태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목자, 점자, 녹음 도서 위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너무 적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접근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조금씩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자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전자도서, 소리도서, 데이지도서, 전자점자도서 등의 형태를 보다 더 다양하고 사용이 용이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보급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가 개발되어야 장애인의 독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도서의 제공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분야를 한정해서 도서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모든 영역의 도서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도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늘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자료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기관별로 중복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또 원하는 책이 어느 기관에 있는 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신속한 자료의 제작이다. 일반 서점에 책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도 동시에 점자나 녹음, 전자 도서를 이용하여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예, 미국의 자료접근법 등) 신속한 자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독서 장애인의 독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

독서 장애인의 독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366개의 복수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을 유목화하면 35개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35개의 의견을 빈도수가 높은 의견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형식: 순위/의견/빈도/퍼센트).

1. 다양한 형태의 도서 제공 / 48명 / 13.1%
2.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컴퓨터 / 34명 / 9.3%
3. 이용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 32명 / 8.7%
4. 사회적 인식의 개선 / 26명 / 7.1%
5. 관련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 / 24명 / 6.6%

6.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재원 보장) / 20명 / 5.5%
7. 시각장애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 16명 / 4.4%
8. 다양한 매체로의 출판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14 / 3.8%
9. 독서를 할 수 있는 교육 강화 / 14명 / 3.8%
10. 출판물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해결 / 14 / 3.8%
11. 낭독자 양성 / 12명 / 4.4%
12. 시간이 바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 12명 / 3.3%
13. 다양한 종류의 독서 자료 확보 / 10명 / 2.7%
14. 사용의 편의성 / 10명 / 2.7%
15. 출판단계에서 전자파일로 법규정 / 8명 / 2.2%
16. 봉사자가 어느 정도 지식과 견해가 필요 / 8명 / 2.2%
17. 이용자 본인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6명 / 1.6%
18. 출판사 및 S/W 제작 단체와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 6명 / 1.6%
19.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얻을 수 있게 / 6명 / 1.6%
20. 관련 연구를 위한 투자 및 우수 연구 인력 유치 / 6명 / 1.6%
21. 서비스의 중복 제작 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통합 기구 설치 / 4명 / 1.1%
22. 책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 / 4명 / 1.1%
23.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 4명 / 1.1%
24.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행 / 2명 / 0.5%
25. 점자도서관의 설립 확대 / 2명 / 0.5%
26. 화면읽기 서비스 개선 / 2명 / 0.5%
27.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할 수 있는 코너 마련 / 2명 / 0.5%
28. 주문서적 / 2명 / 0.5%
29. 관리 평가제 / 2명 / 0.5%
30. 시각인의 등급이 다양하므로 등급에 맞는 도서의 다양성 확보 / 2명 / 0.5%
31. 장애인들이 쉽게 독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관을 확충 / 2명 / 0.5%
32.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 / 2명 / 0.5%
33. 시각장애 도서 제작의 표준화 / 2명 / 0.5%
34. 제작의 유통 체계 향상 / 2명 / 0.5%
35. 전문 아나운서 채용 / 2명 / 0.5%

위의 내용 중에서 앞의 내용(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과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5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컴퓨터이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합한 컴퓨터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제는 점자 뿐만 아니라 전자도서를 이용하

여 독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성지원이 가능한(예, 화면읽기프로그램 등) 컴퓨터의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이다. 아직까지 전수 차원의 정확한 이용 실태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독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앞으로의 정책 개발이나 서비스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사회에 보다 더 통합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안으로 필요한 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밖으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히 요구된다. 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왜 만들어져야 하는 지 또 뭐가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관련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이다. 현재 시각장애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담 직원의 급여가 매우 열악하다. 또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관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다섯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과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독서 어려움을 해소할 서비스 제공 방안

독서 장애인의 독서 어려움을 해소할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320개의 복수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을 유목화하면 28개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28개의 의견을 빈도수가 높은 의견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형식: 순위/의견/빈도/퍼센트).

1. 전자도서 칩의 개발 / 50명 / 15.6%
2. 낭독 서비스 / 30명 / 9.4%
3. 인터넷/ARS 등 회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기관 사이트 및 전화 개설 / 26명 / 8.1%
4. 컴퓨터 교육 실시 / 24명 / 7.5%
5. 다양한 종류의 독서 자료 확보 / 20명 / 6.3%
6. 사이버 도서관 활성화 / 20명 / 6.3%
7. 책상과 의자의 적절한 보급 / 18명 / 5.6%
8. 기기의 간편함 / 16명 / 5.0%
9. 각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투명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14명 / 4.4%
10. 직원의 장애인 이해 / 12명 / 3.8%
11. 신간정보나 도서 정보제공 / 12명 / 3.8%
12. 음성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12명 / 3.8%

13. 자원봉사자 확대 / 10명 / 3.1%
14. 전문 인력의 확충 / 6명 / 1.9%
15. 저작권법의 정비 / 6명 / 1.9%
16. 기초연구 실시 / 6명 / 1.9%
17. 개별적 독서방법 개발 및 전문상담 / 4명 / 1.3%
18. 출판사와 연계 / 4명 / 1.3%
19. 모든 출판물을 코드화시켜서 보이스 아이와 같은 기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4명 / 1.3%
20. 중앙도서관을 두고 각 지역별로 부도서관 운영 형식으로의 전환 / 4명 / 1.3%
21. 우편대출 활성화 / 4명 / 1.3%
22. 이동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 4명 / 1.3%
23. 독서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점자도서관 육성 / 4명 / 1.3%
24. 공공도서관 및 기타기관에서 형평성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함 / 2명 / 0.6%
25. 지역 도서관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 배치 및 배달 서비스 구축 / 2명 / 0.6%
26.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관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 2명 / 0.6%
27. 인터넷 접속으로 도서검색-텍스트지원, 음성지원 / 2명 / 0.6%
28. 국공립 도서관에 서비스 제공 / 2명 / 0.6%

위의 내용 중에서 앞의 내용(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과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5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도서 칩의 개발이다. 이것은 점자도서, 녹음도서의 형식을 탈피한 획기적인 것으로 전자도서 칩의 형태를 취한 도서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에 뒤처지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낭독자를 이용한 대면서비스를 말한다. 이것은 점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중도 실명자 및 시각장애인 노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셋째, 인터넷 및 ARS 접근이 가능한 기관별 사이트 및 전화 개설이다. 정보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ARS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넷째, 컴퓨터 교육의 실시이다. 대부분 서울에서만 관련 연수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수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 도서관의 활성화이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선 사항이다. 이를 통해 메일링 서비스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보화도 앞 당길 수 있다.

4) 독서 장애인 서비스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

독서 장애인의 서비스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304개의 복수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을 유목화하면 22개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22개의 의견을 빈도수가 높은 의견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형식: 순위/의견/빈도/퍼센트).

1.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원 지원(보장) / 42명 / 13.8%
2. 장애인 독서지원 법규마련 / 36명 / 11.8%
3.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운영 / 26명 / 8.6%
4. 전문 직원 배치 / 24명 / 7.9%
5.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홍보 / 22명 / 7.2%
6. 녹음, 컴퓨터 등 시설 확충 / 22명 / 7.2%
7. 녹음도서 보급 기관이나 단체의 신설 / 20명 / 6.6%
8. 도서관별 일원화 / 18명 / 5.9%
9. 저작권법 개정 / 18명 / 5.9%
10. 녹음도서 제작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 이에 낭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 필요 / 14명 / 4.6%
11.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12명 / 3.9%
12. 출판사로부터 직접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 / 12명 / 3.9%
13. 보이스아이 심볼을 정책화하여 신간도서를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함 / 6명 / 2.0%
14.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학문적 연구 / 6명 / 2.0%
15. 이동 점자 도서관차량 운행 / 6명 / 2.0%
16. 빠른 대출과 적절한 시기의 요구 도서를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 / 4명 / 1.3%
17. 모든 도서관 관련 종사자에게 장애인 도서 관련 연수 실시 후 인센티브 제공 / 4명 / 1.3%
18. 편의시설 확충의 미비로 인한 접근성 확보의 어려움 / 4명 / 1.3%
19. 정보문화진흥원, 특수교육원 등 국공립기관 산하의 공식기구 마련 / 2명 / 0.7%
20. 자료 제작과 관련한 통일된 제도 마련 / 2명 / 0.7 %
21. 우편대출 활성화 / 2명 / 0.7%
22. 일반, 대학도서관에서도 독서 장애인 시설 확충 / 2명 / 0.7%

위의 내용 중에서 앞의 내용(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 2. 독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5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독서지원 법규 마련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기관의 전문적인 운영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간의 조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정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 직원의 배치이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훈련 받은 전문 직원의 확보가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다.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한 발 나아가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 저작권법의 개정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더 쉽고 보편적인 자료의 형태로 시각장애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각 기관마다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정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 방안 연구의 기초 연구로써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와 독서환경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것으로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실태에서 장애인 도서관의 이용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련 도서관의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10여명 수준으로 열람석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점자도서관의 경우 일반도서관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설치돼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 자료의 제작방법으로 점자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서비스는 차이를 보이며,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에 많은 차이가 있다. 기관들은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독서 관련 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기관별 차이가 크다.

둘째, 시각장애인 독서환경 개선으로는 우선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을 통한 접근성 확보,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의 개발 및 보급, 다양한 도서의 제공, 자료의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 대면 낭독 서비스, 신간도서의 신속한 자료 제작, 방문 서비스 제공,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독서 장애인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형태의 점자 교육, 전문 도서관의 설치, 저작권법 개정, 관련 기자재 및 컴퓨터 활용 교육, 유자격자 배치 등이 제안되었다.

참고문헌

- 강숙희(200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229-256.
- 이해균, 김성애, 김정현(2007).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I: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619-643.
- 전재봉(2002).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3(4), 157-173.
- 정병국(2004).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연구원.
- <http://news.naver.com/news/read>

Method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Kim, Sung Aa

Daegu University

Kim, Jung Hyu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examined actual conditions of libraries' operation for blind people and proposed its improvement plans as a part of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The study made up questions with 29 libraries for the blind and 126 blind peopl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in actual conditions of libraries' operation for the blind, blind people's users of libraries are limited and the monthly average number of users of most libraries concerned are about 10 persons and the number of cubicle is also very a few. Braille libraries have better-installe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an general libraries mainly. A lot of Braille libraries use the Braille printer to manufacture documents in their possession.

Second,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blind, the following things were proposed: Secure accessibility through data service in various forms, develop and supply various technical aids, service various books, form network to share data, offer facing reading service, manufacture rapid data of new books, offer visiting service, expand facilities of libraries concerned and secure accessibility, support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through various programs, offer custom service suitable to each degree and type of blindness, offer Braille education in various ways, install specialized libraries, revise the Copyright Act, offer utility education of materials concerned and computer, arrange persons with qualification concerned, etc.

key words : The disabled, reading environment, library

논문 접수: 2007. 11. 5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7